

· 대한제국 양악대 창설 117주년 기념 ·

제 1회 탐골공원 대 음악축제

역사와 음악의 콘서트

특별 사진전

2018년 9월 7일~9월 10일

탐골공원

Special Photo Exhibition

1부: 서울도시개조사업 "전차가 달리는 거리"

2부: 탐골공원 탄생과 대한제국 양악대

· 제1회 탐골공원 대 음악축제 자문위원회 ·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안창모(경기대학교 교수),
김선아(창덕궁앞 열하나 동네 대표), 유진영(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조운영(충남도립교향악단 연주자, 음악사 전공)
한스 크나이더(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이태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원장) (무순)



팔각정 앞 양악대



전차를 타고 거리를 누빈
'이동 콘서트'



전차길이 생긴 보신각 일대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대축제



전차 앞 서울시민들



탑골공원



프란츠 에케르트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차례로 빼앗으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은 자력으로 근대화 할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였다. 이런 악선전 속에 한국 근대를 이끈 군주 고종은 '바보군주'가 되었다. 잘못된 역사인식이 광복 후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도 바로 고쳐지지 않는 현실이다.

고종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자주 독립과 자력 근대화의 길을 찾던 군주였다. 그는 한 서양인 기독교 주교의 알현을 받는 자리에서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신문명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니 더 많은 선생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이 많아졌는데도 이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바보 군주'란 거짓 정보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다.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서울을 장악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왕비가 궁 안에서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왕은 짐이 왕비의 몸을 궁 안에서 지키지 못하였으니 짐이 왕비를 저버렸다고 통탄하였다. 왕 자신의 신변조차 위협을 받아 새벽에 궁을 빠져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하였다. 거기서 1년 간 머물면서 일본 앞잡이정권을 와해시키고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준비를 시작하였다.

수도 서울을 현대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로의 폭을 넓히고 전기 시설을 확대하여 전차를 달리게 하였다. 미국의 대통령 궁(현 백악관)처럼 도심에 경운궁(현 덕수궁)을 새로 지어 이곳을 방사상 도로의 결절 점으로 삼아 황성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초대 주미공사관 팀이 나선 도시개조사업은 종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탑골에 공원을 조성하였다.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선포된 뒤 1901년에는 서울을 지키는 시위연대에 군악대를 창설하고 애국가도 새로 지었다.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새 궁전과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졌다. 애국가 연주는 국민의식을 드높이고, 서양 각국의 국가와 민요, 명곡들은 시민의 눈과 귀를 저 먼 서양으로 향하게 하였다. 대한제국 양악대 창설 117주년을 기념하는 '탑골공원 대 음악축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근대'를 되찾는 아름답고, 거룩한 행보이다.

우리의 자력 근대화의 능력을 담보하는 증거들은 그간 일제에 의해 유실 당하였다. 독일에서 구입한 최신의 구리 음향 판 연주 무대 호라이즌트(horizont)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공원 자체가 아예 대한제국의 영국인 재정고문이 만들어 준 것이란 허위정보가 안내판을 장식하였다. 이 모든 잘못이 바로 잡아지는 기회로서 대축제의 의미가 더하기를 바란다.

지난해 늦가을 '뉴 코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송재용 단장이 찾아와 축제 행사를 제안하고, 올 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역사, 음악 전공 여러분이 기꺼이 응하여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역사와 음악이 함께 하는 초유의 문화행사를 시민과 함께 하여 더욱 뜻 깊다. 축제의 성공을 기원해 마지않는다.

자문위원회 위원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대한제국 양악대(시위군악대)의 연주 활동



리라벨을 든 양악대

1. 주요 활동

경운궁(현 덕수궁) 내 돈덕전 등 궁전, 창덕궁, 탑골공원, 각국 공사관, 명동성당, 손탁호텔, 훈련원 등에서 연주하였다. 1900년 장충단이 설립된 후는 3월, 9월 위령제 때 진혼곡을 연주했다. 1905년 3월 독일 하인리히 황태자가 대동한 해군 군악대와 탑골공원에서 각국 공사, 영사 및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교환 연주회를 가져 '월등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1910년 '강제 병합'으로 이왕직 양악대가 된 후로는 탑골공원과 그 옆에 있던 종로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가장 많은 연주 행사를 가졌다.

2. 연주 레퍼토리

대한제국 애국가를 비롯하여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바그너의 탄호이저 서곡,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등 오늘날 우리가 즐겨 듣는 명곡들을 연주하였다. 1908년 9~11월 11회 연주회 때 무려 69곡(52명의 작곡가)을 연주하였다. (『Seoul Press』)

“한국인은 농업 다음으로 군악을 잘 한다는 말이 있다.”

〈서양인들의 평가〉

“한국인은 농업 다음으로 군악을 잘 한다는 말이 있다. 군악대가 설립된 지 몇 해 밖에 되지 않아 학습한 곡목도 아직 많지 않은데도 연주법은 영국의 빅토리아 관악대나 미국의 수사(해군) 관악대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한국을 사랑하여 고종황제를 위해 일생을 바친 대한제국 고문, 호머 헐버트, 『동명』 1922. 12.)

“(궁에 초대되어) 식사를 기다리는데 황제의 악대가 연주하여 여흥을 돋우었다. 유럽풍의 옷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은 30여 명의 악사들로 이루어진 악단은 훌륭한 독일인 지휘자 프란츠 에케르트 지휘로 연주하였다. (중략) 그는 한국의 국가를 작곡하였으며 2년간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작업을 통해 이 악단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이태리)의 지방에서 연주하는 많은 악단들 못지않았다. 약 한 시간 정도 계속되는 음악 감상에는 대신들과 외교관들, 통역관이 함께 자리를 하였다.” (1900~1902년 서울에서 근무한 이태리 외교관, 까를로 로제티의 〈한국과 한국인〉)



군악대 막사 문 앞에 선 양악대 일동

대한제국 양악대 창설 117주년 기념

❖ 특별사진전 ❖

1부: 서울도시개조사업 "전차가 달리는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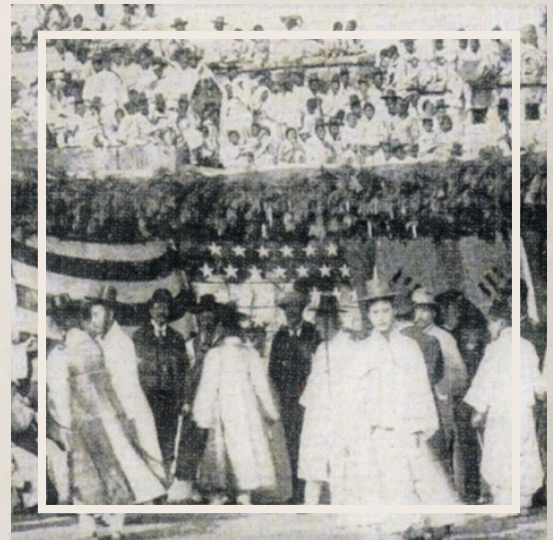
2부: 탑골공원 탄생과 대한제국 양악대



고종황제



행진하는 대한제국 군악대



전차 개통식



탑골공원 조성을 제안한 이재순



타원형의 탑골공원
(1912년 평면도)